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②

是以晝三夜三 勤勤習 惺惺無妄
시이 주삼야삼 근근은습 성성무망
寂寂明亮 不違修門 屈即失於此心
적적명료 불위수문 굴즉실어차심
靈通應物 常在目前 終日隨緣
영통응물 상재목전 종일수연
而終日不變之德 是以將病愛
이종일불변지덕 시이 장치애
成解脫眞源 運食壤 現菩提大用
성해탈진원 운담진 현보리대용
逆順自在 縛脫無拘 順於性
역순자재 박탈무구 순어성
門也 此修性二門 如鳥兩翼 關一不可
문야 차수성이문 여조양익 결일불가

된다. 굽은 말은 이름과 모양을 헤아리
나라 수고롭고, 바른 말은 번거로움과
되풀이가 없다. 무심히 자연스럽게 쓰면
항상 써도 자연스러워 쓰는 것이 없다.
지금 말한 바 마음이 없다는 것도 바로
마음이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였
다. 만약 여기에서 뜻을 얻어 뛰어난간
다면 말세 증생이라도 어찌 단斷·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과 상常·항상 있다는
생각에 떨어질 걱정을 하겠는가. 지금
까지 이른 바 없는 법문과 보살의 모
든 지위의 공덕이 다 묘심의 본체에 갖
추어져 있음이 여의주와 같다 한 것이
어찌 거짓말이겠는가. 묘심이란 바로 깨
어있으면서도 고요한 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밤낮 부지런히 공부하여
항상 깨어있되 망령됨이 없고, 고요
하되 알아야 하는 그런 수행의 문을 어
기지 말아야 한다. 만약 물러서면, 항상
눈앞에서 사물을 상대하며 종일 인연
을 따르되 변함이 없는 신통한 마음의
덕을 잃고 만다. 그러므로 어리석음과
애욕 가운데서 해탈의 참된 근원을 이
루고, 탐욕과 분노를 잘 운용하여 보리

問今時修心之人 若博學多聞
문금시수심지인 약박학다문
說法度人 則損於內照 若無利他之行
설법도인 즉손어내조 약이타지행
則何異趣寂之徒也
즉하이취지도야
答此各在當人 不可一向 若因言悟道
답차각재당인 불가일향 약인언오도

수행과 성품이라는 두 문은
새의 양 날개와 같은 것이다

의 큰 작용을 나타내어, 역경과 순경에
자재하여 결박과 해탈에 구애되지 말
고 성품에 순응해야 한다. 수행과 성품
이라는 두 문은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
아서 하나만 없어도 안된다.

釋教明宗 具擇法眼者
자교명종 구택법안자
雖多聞而不起認名執相之念 雖利他
雖多聞而不起認名執相之念 雖利他
수다문이불기인명집상지념 수이다
而能斷自他情愛之見 悲智漸圓
이능단자타정애지견 비지점원
妙契實中則誠當實行者也
묘계실중즉성당실행자야

先德云 恰恰用心時 恰恰無心用
선덕은 흡흡용심시 흡흡무심용
曲談名相勞 直說無煩重 無心恰恰用
곡담명상노 직설무번중 무심흡흡용
常用恰恰無 今說無心處
상용흡흡무 금설무심처
不與有心殊 若能於此 得意進修
불유有心殊若能於此 得意進修
불어유심수 약능어차 득의진수
則雖是末世家生 何患乎落斷常之坑也
즉수시말세중생 하환호난단상지경야
向來所謂塵數法門 諸地功德
향래소위진수법문 제지공덕
妙心體具 如如意珠 豈誣也哉
묘심체구 여의주 기묘야재
言妙心者 是惺惺寂寂之心也
언묘심자 시성성적적지심야

물었다. "지금 마음 뒤는 사람이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설법으로 남을 제
도할 경우에는 마음을 관조하는 공부
는 손실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타행
(利他行)이 없다면 고요함만을 즐기는
무리와 무엇이 다른가."

답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 일률적으
로 말할 수 없다. 말로 인해 도를 깨닫거
나 교화에 의해 종지를 밝히려는 일단
법을 택하는 눈을 갖춘 이는 많이 들었다
해서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
타행을 하더라도 자기가 남이다 하여 미
워하거나 사랑하는 생각이 끊어지고 자
비와 지혜가 점점 원만해져서 절대의 법
계에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참다운 수행
인이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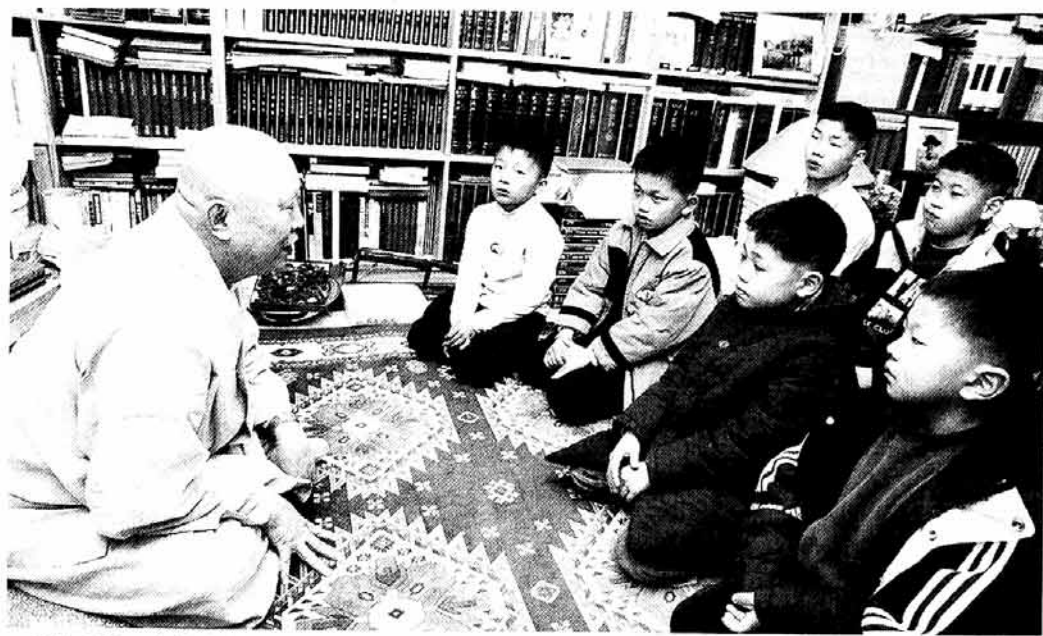
옛 스님의 말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술 때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없이 쓰게

가까이서 뵈 큰스님

천운스님

광주 향림사 조실

“계을 안 지키면 불자 아니다”



천운스님은 40년 가까이 같고 없는 아이들을 부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키워오고 있다. 향림사 아이들과 즐겁게 담소하고 있는 천운스님. 사진=고영배기자

“실천하는 큰 스님” “언제나 현역”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을 가까이서 모신
상좌들이나 불자들은 한결같이 스님을 이
렇게 칭한다. 스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중에서 오불관연으로 근엄하
게 앉아 있는 전통적(인) 큰스님의 이미지
에서 멀어도 한참 멀다. 또 친견하기 까다
롭고 일반대중이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법문을 내리는 큰 스님상과도 거리
가 멀다. 스님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신도
들을 제정하는데 보낸다. 또 직설적이고 정
곡을 지르는 법문으로 신도들이 자신을 돌
아보게 한다. 스님은 적극적으로 활동적이
다. 매사에 등장하고 기가 필필 느껴진다.
70이 넘는 지금도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법
회를 자상하게 돌보고, 군법당을 돌며 법문
을 하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개원
을 위해 불철주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의 불모지로 첫손 꼽혔던 호남, 그
중에서도 광주가 이민족이나 불교포교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천운스님이 계셨기 때
문이라는 것이 교계의 이구동성이다.
스님이 광주 상무동에 향림사를 세운것
은 지난 70년대 초. 당시 절들은 대부분 불
공중심이었고 법문은 어려운 한문투였으
며 또 신도를 대부분이 함미들이었다. 그
러한 때 천운스님은 직접 찬가가를 부르며
청소년들이 절에 오도록 했고, 어린이법회,
중고등학생법회, 대학생법회를 만들어 어
린이 청소년들을 불교와 맺어주고 수련회
도 직접 주관했다. 또 쉬운 말로 법문을 했
고 한글경전 읽기를 권장했다.

스님의 교육열은 유명하다. 당시 대부분
의 중진·원로 스님들이 상좌가 대학에 가
고 현대식 교육을 받으면 환속하기 쉽다고
상좌들의 교육 의지를 꺾을 때 천운스님은
전통적 수행도 중요하지만 현대적 교육도
중요하니 동국대나 숭실대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외국유학도 하라고 독려했다.

법인스님(해남 대문사 총무)은 “상좌는
물론 손상좌와 다른 문종의 스님일지라도
인연있거나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
며 열심히 뒷바라지해주는 분이 바로 큰
스님”이라며 “특히 포교에 관심이 커져서
22교구 말사주지 회의때는 늘 지역특성에
맞게 포교를 하라, 각 말사들은 먼 단위까
지 포교를 할 수 있는 복지포교를 해야 한
다고 강조하셨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지를 할 수 없다고 일갈하셨지요”라고
전했다.

절에서 일하는 중무원들의 자녀들 교육

행하기가 강조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술먹는 것. 담
배피는 것, 수염기르는 것, 화투치는 것. 장
기 바둑 두는 것이요. 상좌들에게 그런
짓 하면 나와 인연은 끊이다 그대요.”

많은 불자들이 오고 보살계 등을 수지
하고 또 스님들은 사미(니계, 비구(니계) 등
을 받지도.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불교계는
전체적으로 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또 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하
거나 계를 받더라도 무시하기 일쑤예요. 그
러나 우리는 본래 청정하게 구족되어 있는
불성을 계발하여 성불하는 것에 목적을 두
었기 때문에 우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바
로잡을 수 있는 계를 받아 지키는 것이 절
실합니다.”

스님은 은사스님인 지암스님의 가르침
을 일러주신다.

“불자는 항상 계을 근본으로 지키고
계을 따른 실천을 하며 삶의 지표로 삼
으라고 역설하셨지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
과 중생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
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중생이 부합하는 것
이고 율은 부처님의 행과 중생이 하나되는
수행의 문입니다. 그렇기에 계을 받아지
키지 못하는 자는 진정 수행을 한다고 볼
수 없고 계을 지키지 않는 자는 승복을

행하기가 강조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술먹는 것. 담
배피는 것, 수염기르는 것, 화투치는 것. 장
기 바둑 두는 것이요. 상좌들에게 그런
짓 하면 나와 인연은 끊이다 그대요.”

많은 불자들이 오고 보살계 등을 수지
하고 또 스님들은 사미(니계, 비구(니계) 등
을 받지도.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불교계는
전체적으로 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또 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하
거나 계를 받더라도 무시하기 일쑤예요. 그
러나 우리는 본래 청정하게 구족되어 있는
불성을 계발하여 성불하는 것에 목적을 두
었기 때문에 우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바
로잡을 수 있는 계를 받아 지키는 것이 절
실합니다.”

스님은 은사스님인 지암스님의 가르침
을 일러주신다.

“불자는 항상 계을 근본으로 지키고
계을 따른 실천을 하며 삶의 지표로 삼
으라고 역설하셨지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
과 중생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
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중생이 부합하는 것
이고 율은 부처님의 행과 중생이 하나되는
수행의 문입니다. 그렇기에 계을 받아지
키지 못하는 자는 진정 수행을 한다고 볼
수 없고 계을 지키지 않는 자는 승복을

입을 자각이 없다고 누누히 강조하셨지요.

또 계을 실천이 없는 수행자는 세인의
신앙을 저버리게 되어 정신적 사표로서 존
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리고 계을 지키지 않는 자는 스스로 스
님이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 되고 그런자가
진리를 말함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셔요.
계을 청정해 근본으로 하는데 청정하지
못한 자가 입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성인의
말씀을 역설해도 그것은 이미 사탄 마귀의
소리라고 하셔요. 스승이 청정한 계
을을 지니지 못하면 어찌 그 제자에게 청
정한 계을을 지키라고 경책해 주겠습니
까?”

천운스님은 “계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바로잡는 기풍과도 같지만 더 나아가 사회
와 국가의 정화를 위한 근본이 되는 것이
니만큼 개인의 신앙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중생계를 맑게 한다는 원력을 가지고
계을 지키고, 또 계를 받지 않는 자는 자
기 절제의 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탄 행위
를 하고도 뒤우침과 죄책감이 없으므로 인
연이 닿는 중생에게 보살계를 설해주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수행자의 본분지키기에 투철한 스님은
출가한 이래 조석예불 드리는 것을 결코
거른적이 없다. 법감스님은 “제가 은사스

중무원 자녀에 교육비

“누구든 공부해야 한다”

비를 지원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몇이나
될까. 향림사와 광주불교교당, 복지관 등
에서 일하는 이들은 모두 50명이다. 스님
은 직원 자녀들의 교육비 일체를 부담한
다. 자녀가 들어간 셋이전 관계제 학교 교
육비를 낸다. 그 교육비가 1년에 1억이 넘
게 든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스님이 전국
사찰에서 법문한 후 받는 여비를 모아 충
당하고 있다.

스님은 제자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상좌
인 법감스님(도갑사 주지)은 “절에서 라면
이라도 끓이면 화피가 나무라고 삼천배
참회를 해야했다”고 일화를 들려준다. “어
찌다 밖에서 음식을 사먹고 절에 들어오면
스님에게 들켜봐 양치질을 몇 번씩 하고
스님과 5m 이상 떨어져서 서있어도 어떻
게 아시는지 혼나곤 했다”는 것이 상좌들
의 이야기이다. 그만큼 스님은 스님 자신
은 물론 상좌, 손상좌들에게도 철저히 계

제2회 3백3십3배 특별정진
“큰 업장 108 번씩 즉시 녹이고
큰 소원 한가지는 필히 이뤄라”
소리산 출세봉, 해탈봉, 반야봉, 피안봉의 신령스런 길상지
수행전도량에서 환희심으로 가슴 벅찬 감동을 체험하시고
부처님 밝은 빛으로 방광 하심의 가피를 입게됩니다.
정진내용
1회 (3배+108배)+(3배+108배)+(3배+108배)
= 333배 (45분+5분 축원기도+10분 휴식)
~10회+3배 = 3333배
절을 못하시는 분은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를
절 헌번에 3회 영송하시게 됩니다. (3333배 x 3 = 9999회)
준비물 공양미, 기도포, 세면도구
일시 2001. 2. 24 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아침 7시
절을氣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정견스님의
지도하에 일괄적으로 절 수행을 하시기 됩니다.
3박 4일 수행체험 특별기도 수행 (수시참여 가능)
아름다운 소리산
풍빛고을 소공암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6736(팩스겸용)
찾아 오시는 길
서울 상봉터미널~모곡행버스 정점 하차 하산후, 전화요망
서울 대명관광 [02]538-7300
서울역삼역 한국은행 후문 종전 대명 스키장 하차 하산후, 전화요망

경북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불기2545(2001)
15년 전통을 갖고있는 본 대학에서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불자들의 질적향상과
전반도성,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개발을 목적으로 중추를 조형하여 새 시대를 여는
지혜원은 포교사 및 대덕법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 음
1. 모집정원 및 입학자격
1) 불교 대학 - 2년과정 200명(연령, 학력제한 없음)
2) 불교대학원 - 2년과정 30-50명(연령, 학력제한 없음)
3) 대학원은 본 불교대학 2년 수료자 및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 3매
3. 입학절차
1) 원서를 제출한 자 중 입학자격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에
한하여 2001년 3월 2까지 개별 통지함
2) 등록회비 30,000원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 원서교부 : 2000. 11. 5 - 2001. 3. 1 까지
2) 원서접수 : 2000. 11. 5 - 2001. 3. 1 까지 마감
5. 원서교부처 1) 본 대학 교학처 및 서무과
전화 : 054)632-8226 팩스 : 054)632-6675
2) 안양원 (상암동 영주여고 옆)
전화 : 054)636-8877 팩스 : 054)632-0860
6. 강의교과 및 시간(2시간)
1) 강의교과 - 주요경전 6과목, 불교학기초, 일반교양,
수련법회 2회, 성지순례 2회
2) 강의시간 - 대학원 매주 화요일 19시 - 21시 (2시간)
대 학 매 주 금요일 19시 - 21시 (2시간)
7. 입학식 - 2001. 3. 3 (토요일) 오후 2시 - 본강당
8. 수료 후 혜택
1) 대학을 수료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을 드림
2) 대학원을 수료한 자에게는 원호 대덕법사 자격증을 드림
경북 영주시 영주2동 로양상가 5층 전화 054)632-8226 팩스 054)632-6675
경북불교대학원장 철학박사 원의법
경북불교대학장 삼장법사 안경우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버락 맞은 대추나무)
옛부터 우리 조상님
들께서 버락맞은 대추
나무는 가장 신기한
나무라고 전해내려 오
고 있는 진품 벽조목
은 세상에서 행도 없
는 천하의 행운을 주
는 보물입니다.
사진에 소개된 진품
벽조목은 수백년 묵은 대추나무로 충북 음성군 원남
면 상노리 소재 1950년 7월 하순경 버락 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던 귀중한 것입니다.
진품 벽조목은 평생 갖는 목거리, 열쇠고리, 도
장, 낙관, 단주, 염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
병, 사업, 경제난, 입시, 승진, 가정화합, 자녀갈
등, 집을 짓고 고친 후 정신질병, 손재, 흡수,
호신부 패물, 부직, 성물,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
에게 재앙, 액운, 잡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
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
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항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
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홍련 임 공덕하 법사
02)909-1360 · 011-9778-2803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 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성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언뜻·유자·만자부위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가 임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130,000
바지,조끼 180,000
누비 180,000
(상,하)
누비방한복 130,000
(상)
누비조끼 60,000
누비동방 180,000
(두루마기)
바랑 30,000
유시물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 성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133-1 (봉용빌딩 3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